



2021년 5월

선교편지 제 143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UN 통계에 의하면 필리핀 인구의 92 % 이상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 (Christian)'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억명에 가까운 기독교인 중에 가톨릭이 81%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11 %가 개신교,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Iglesias Ni Cristo), 제칠일 안식교, 연합 그리스도 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구의 5.6% 정도가 모슬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래 된 선교 역사를 갖고 있는 필리핀에서 기독교라 함은 자연스럽게 가톨릭을 의미합니다. 나라 전체가 가톨릭 문화와 절기에 맞춰져 있어서, 모든 필리핀인의 세계관이 가톨릭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결혼과 장례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의식에 따라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선교사로 온 저 자신보다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아침에 만나는 동네 이웃으로부터, 상점의 점원, 길 거리의 경찰, 검문소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수 없이 'God bless you.'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나라에서 과연 저들이 믿는 가톨릭의 정체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한 가톨릭 국가에 소위 '개신교 선교사'를 이곳까지 보낸 까닭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에서 남으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도로, 북쪽의 루손 섬과 남쪽의 민다나오 섬이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기본적으로 말레이 인종에 속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곳에서 이주한 부족들은 바랑가이 (Barangay)라는 족장 지배체제로 비교적 고립된 정착 생활을 하여, 부족들마다 서로 다른 100여 개의 언어 및 방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페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아랍과 같은 다양한 외부 인종과 섞여 살며 혼혈 민족이 되었고, 2020년 현재 약 일억 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은 탐험가 마젤란 (Ferdinand Magellan)에 의해 1521년에 발견되어, 탐험가 빌라로보스 (Villalobos)에 의해 1542년 당시 스페인의 필리페 2세의 이름을 따라 필리핀 (Philippines)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스페인에 의해 1565년부터 33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 스페인의 종교인 가톨릭으로부터 언어와 문화,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60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내의 스페인 저항운동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1898년에 필리핀의 소유권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양도 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점령된 후 마침내 1946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필리핀은 스페인, 미국, 일본과 같은 열강에 의해 식민 지배를 경험하였고, 다양한 인종과 언어 속에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교가 혼합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복잡한 정치 배경 속에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미소는 이러한 열강의 식민지배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형성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선교 역사는 1521년 4월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 필리핀의 세부(Cebu)에 도착함으로써 시작하였습니다. 마젤란과 함께 동행했던 스페인 선교사가 세부 주민 팔백 명에게 세례를 주어 가톨릭으로 개종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후 마젤란이 부족전쟁에서 사망하여 그의 탐험대도 필리핀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선교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1559년 스페인의 필립 2세는 레가스피(Legaspi)를 필리핀에 파견하여 본격적인 식민지화와 가톨릭 선교를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인 거주지를 세부에 건설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ians) 소속 선교사들은 필리핀 최초의 가톨릭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 당시 필리핀은 여러 사물에 영혼이 담겨있다고 믿는 토속종교나 잡신을 믿고 있었는데, 가톨릭이 새롭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토착 신앙들과 섞여 새로운 형태의 가톨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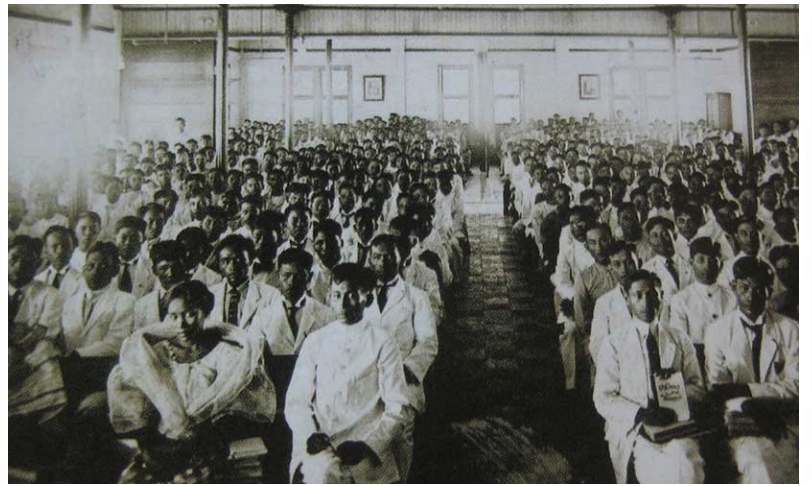
스페인 식민정부의 의한 선교는 두 가지 형태의 가톨릭 토착화로서 진행되었는데, 필리핀 가톨릭 교회 조직의 토착화와 일반 민중의 가톨릭 신앙의 토착화입니다. 교회 조직의 토착화는 로만 가톨릭 중심의 제도권 가톨릭과 대립하며 현실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조직의 성장으로, 시민운동세력을 통한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토착화는 가톨릭 이전에 존재했던 원시적인 신앙이 가톨릭의 신앙체계와 결합하여 만들어낸 변형된 신앙 형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로만 가톨릭과 다른 필리핀만의 토착 가톨릭을 형성하였습니다.

스페인은 가톨릭 선교를 수도원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수도회 소속 성직자들은 스페인 식민지 통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정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영적 대상이었지만, 이들은 또한 식민지 정부의 관리자 역할도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의 가톨릭의 역할은 식민지배의 정당화라는 기본적인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 식민 통치 330년 동안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는데, 주로 노동 착취나 세금에 관련된 문제였지만 가톨릭 자체의 종교적인 이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스페인 정부의 군사력에 힘입어 필리핀 전체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필리핀은 신앙이나 조직에서 토속 신앙과 섞이는 매우 강력한 토착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랜 독립 투쟁을 벌이던 중 마침내 1898년에 독립선언을 했지만, 미국은 스페인을 물리치고 파리 조약에서 필리핀의 지배권을 매입하여 미국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미국이 강력하게 필리핀을 지배하면서 필리핀은 다시 한번 미국을 통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1898-1946)

미국으로부터 식민 지배가 시작됨과 동시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1898년을 개신교 선교의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필리핀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하였고, 개신교 선교단체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세웠으며, 개인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스페인 식민 지배 당시 실시했던 종교와 정치의 합치와는 달리, 미국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였습니다.

1899년 미국 장로교회 소속 로저스 선교사 (Dr. Rodgers)는 두마케티 (Dumaguete)에 있는 실리만 대학교(Silliman University) 설립을 시작으로 에큐메니즘 (Ecumenism)을 주장하며 이후에 들어온 타 기독교 교단들과 함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Wycliffe Bible Translators)는 1953년부터 피트만 박사 (Dr. Richard Pittman) 외에 22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에 의해 현지 언어의 성경 번역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연합 그



리스도 교회 (UCCP)는 세 개의 교파가 통합되어 형성되었는데, 연합 복음주의 교회 (회중교회), 복음주의교회 (연합형제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그리고 필리핀 감리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연합교회 (UCCP)는 교육, 의료, 행정에도 협력을 하였고, 성경학교, 학원, 중소 대학, 간호학교, 신학교 등의 학교를 세우며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필리핀의 선교 역사는 330년간의 스페인 식민 지배 하에 필리핀 토속신앙에 동서양이 혼합되는 복합 문화형태를 띄며 가톨릭이 국교가 되었고, 이후 미국의 식민 지배로 개신교가 유입되어 기존의 이슬람교가 포함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가톨릭과 개신교는 순수한 선교 목적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열강의 식민지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정착 된 것으로 필리핀인에게는 식민 지배자와 선교사는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표면적으로 전체 인구의 81%가 가톨릭 신자로 진정 가톨릭 국가로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신자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가톨릭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헌신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삶으로 신자임을 확인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가톨릭 신자라고 믿고, 또한 가톨릭 절기와 용어에 익숙하지만, 실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는 토착 가톨릭 문화와 토착 가톨릭 세계관에 익숙할 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토속 신앙에 가톨릭을 덧 칠한 토속적 가톨릭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을 뿐이고. 예수 십자가와 수많은 성인들의 그림은 그들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상과 부적과 같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의 역사는 50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통 토속 가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는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외형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절실히 요구되는 매우 시급한 선교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식민지배를 통하여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하였고, 복잡한 문화적 환경과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선교 역사도 길기 때문에 선교적 강점을 많이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으로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세계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나 한국인과 같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필리핀 디아스포라 (Diaspora)도 선교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과 기술을 갖춘 팔백만명 이상 되는 젊은 사람들이 해외 도처에 흩어져 있는데, 특히 이슬람 국가인 중동에서 간호사, 기술자,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필리핀도 미래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선교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계층 보다도 아직 토착 가톨릭 세계관에 젖어 있지 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향한 선교에 초점을 맞춘다면 필리핀의 복음화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선교 필리핀(Mission Philippines)을 마음에 품고 4년을 헌신하기로 하고 이곳에 왔는데,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교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항상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도달하는 결론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선교'만이 그 해답이고, 그 열매는 선교현지의 복음화가 선교사 자신이 아닌 헌신된 현지인 리더십에 의해 완수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선교사 자신이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필리핀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헌신된 주의 종들이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